

제 안 설 명 서

- 일 시 : 2020. 11. 26.(목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2021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·세출 예산안」

행 정 국

- 안녕하십니까!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.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채유미 · 한기영 부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
서울의 미래와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
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
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- 특히,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
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고,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2021년 행정국 예산(안)은 ‘소통’과 ‘협력’, ‘상생’의
가치를 기반으로 ‘모두가 행복한 서울’을 만들기
위하여,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있게 검토하여
편성하였습니다.

□ 우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,
세입·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첫째, 서울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.

서소문청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,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공무직 대상 일반휴양시설 이용료와 공연·문화바우처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등 직원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.

- 둘째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.

'21년 보궐선거와 '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추진하고,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과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 및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.

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, 정보소통광장 기능 개선과 체계적인 서울기록 수집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- 다음으로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입·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세 입

- 먼저,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 -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6억 7천 6백만원으로,
 - 2020년 최종 세입예산 2조 2,024억 7천 9백만원 대비 2조 1,878억 3백만원 감소(△99.3%) 하였습니다.
 - 주된 감액 사유는 ‘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’이 2조 1,833억 1천 7백만원 전액 감액되었고,
 - ‘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부담금’이 9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6백만원 감액,
 - ‘민간융자금회수수입’이 37억 9천 2백만원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.
 - 세입예산(안)의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제외수입은 ‘시청사 임대수입’ 등 공유재산 임대료, ‘서울광장 사용료 수입’ 등 기타 사용료, 자치단체간 부담금, 변상금 등으로 121억 8천 2백만원,

- 국고보조금은 ‘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’ 등 6개 사업 24억 9천 3백만원,
- 보전수입 등은 ‘국고보조금 사용잔액’ 1백만원입니다.

세 출

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-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조 5,942억 2천 9백만원으로,
 - 2020년 최종 세출예산 6조 5,058억 5천 7백만원 대비 2조 9,116억 2천 8백만원이 감소(△44.8%) 하였습니다.
-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‘지방선거 관리’ 사업비는 ’21년 3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.

(신규) 340억원(’21년)

- ‘시·자치구 공동협력사업’ 사업비는 ’21년 20억원으로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.

0원(’20년) → 20억원(’21년)

- ‘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’ 사업비는
’20년 2조 5,062억 8천 1백만원 대비 전액 감액
편성하였습니다.

2조 5,062억 8천 1백만원(’20년) → 0원(’21년)

- ‘자치구 조정교부금’은 ’20년 3조 7,062억 1천만원
대비 4,277억 1천 4백만원이 감소한 3조 2,784억
9천 6백만원이며,

3조 7,062억 1천만원(’20년) → 3조 2,784억 9천 6백만원(’21년)

- ‘기록정보관리’ 사업비는
’20년 61억 4천 4백만원 대비 40억 4천 2백만원
감소한 21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.

61억 4천 4백만원(’20년) → 21억 2백만원(’21년)

○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,

-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4.6%인 1,666억 4천 1백만원,
- 행정운영경비가 3.9%인 1,383억 9천 2백만원,
-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1.2%인 3조 2,784억 9천 6백만원,
- 재무활동이 0.3%인 107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.

정책사업별 예산안

□ 다음은,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 조정교부금,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, 「행정지원체계 강화」를 위해 14개 세부사업에 355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행정장비구매」 10억 9천 7백만원
- 「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」 288억 5천 6백만원
- 「시청사 청소관리」 30억 8천 8백만원
- 「노후 시설물 개선」 4억 1천만원

등이 있습니다.

○ 둘째, 「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」을 위해 9개 세부사업에 82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」 10억 1천 1백만원
- 「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」 43억 5천만원
- 「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」 4억 3천 3백만원

등이 있습니다.

- 셋째, 「인적자원 역량 강화」를 위해 22개 세부 사업에 519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,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장·단기 국외훈련」 46억 2천만원
- 「국내위탁교육훈련」 38억 4천 3백만원
- 「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」 8억 9천만원
- 「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」 7억 6천만원
- 「속초 수련원 증축」 57억 5천 3백만원

등이 있습니다.

- 넷째, 「시·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」 및 「시민참여 강화」를 위해 18개 세부사업에 590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시·자치구 공동협력사업」 20억원
- 「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」 123억 5천 9백만원
- 「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」 19억 8천 3백만원
- 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」 8억 8천 3백만원
- 「지방선거 관리」 340억원

등이 있습니다.

- 다섯째, 「정보관리강화」를 위해 5개 세부사업에 65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」 10억 2천만원
- 「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」 21억 4천 6백만원

등이 있습니다.

- 여섯째, 「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」을 위해 3개 세부사업에 8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」 3억 6천 5백만원

등이 있습니다.

- 마지막으로 「기록관리 강화」를 위해 4개 세부사업에 44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

주요 세부사업으로는

- 「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」 9억 3천 6백만원
- 「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」 5억 5천만원

등이 있습니다.

-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세입·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- 2021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2021년 세입·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- 감사합니다.

2020. 11. 26.

행정국장 김 태 균